

주유소 기름값 2주 연속 하락

광주·전남지역 ㄹ 당 50~80원씩 내려 이달 말 1700원대까지 하락 가능성도

국제유가의 상승세가 한풀 꺾이면서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국내 주유소들의 석유제품 판매가격도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베이징올림픽이 유가를 끌어내리는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어 서민들의 고유가 부담이 다소나마 덜어질지 주목된다.

▲2주 연속 하락세 = 광주·전남지역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휘발유와 경유가격은 지난달 17일을 정점으로 2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주유소종합정보시스템인 오피넷에 따르면 4일 현재 광주지역 평균 휘발유값은 ㄹ 당 1천863.4원, 경유값은 1천861.8원으로 2주 전에 비해 각각 50~80원 정도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지역도 평균 휘발유값은 ㄹ 당 1천866원, 경유값은 1천862원까지 하락했다.

그러나 주유소마다 저유용량이나 구입시기가 다르면서 자치단체별로 적게는 ㄹ 당 10원에서 많게는 221원대까지 가격대가 천차만별이었다. 광산구의 경우 휘발유값이 가장 낮

은 주유소는 1천799원이었으나, 가장 높은 곳은 1천947원으로 무려 ㄹ 당 168원이나 차이가 났다.

특히 신안군 D주유소의 휘발유·경유값이 각각 2천10원, 2천20원, 완도군 S주유소가 각각 2천40원, 2천40원으로 광주·전남지역에서 최고가를 기록했다. 신안군 D주유소의 휘발유 판매가격을 잇달아 내리는 것은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 ㄹ 당 40~50원 추가 인하 가능성 = 국내 주유소들이 최근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잇달아 내리는 것은 국제유가와 환율이 동반 하락하면서 정유사로부터의 공급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주유소 판매가격은 최근 두 달만에 1천800원대를 회복한 데 이어

이달 말까지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달 중순에는 1천700원대 중반까지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석유협회는 1일 낸 유가분석자료에서 “국제유가 하락세로 국내 정유사의 7월 다섯째주 공급가격 또한 전주보다 ㄹ 당 50~60원 이상 추가 하락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현재 국제유가와 환율수준이 지속될 경우 이달 초에도 ㄹ 당 40~50원 정도 추가 인하가 예상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고 밝혔다.

특히 석유협회는 정유사 공급가격이 주유소 판매가격으로 반영되는 시차를 감안할 때 8월 중순까지 추가 하락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전망했다.

/이종태기자 jtle@kwangju.co.kr



삼성 '올림픽 폰' 출시 2008 베이징 올림픽 무선통신분야 공식 후원사인 삼성전자가 올림픽 개막을 나흘 앞둔 4일 프리미엄 'Soul 올림픽 스페셜 에디션'을 출시했다. 삼성전자는 2008년 올림픽을 기념해 국내에 2만800대만 한정 판매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光銀, 지역 대학생 대상

세계 기업 탐방단 모집

광주은행(은행장 송기진)은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광주은행과 함께 거침없이 떠나는 글로벌 기업 탐방단' 이벤트를 연다.

이번 행사는 다음달 30일까지 전자금융을 통해 대학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을 대상으로 해외글로벌 기업탐방과 문화체험의 기회를 준다. 추첨방식은 전자금융을 통해 500명 이상 등록금을 납부한 대학(교) 학생 가운데 20~30명을 선발한다. /최정희기자 choice@

지역 제조업 공장 30% '멈췄다'

고유가 등 여파 6월중 가동률 71.7% ... 올들어 최저

고유가, 고원자재가, 환율불안 등으로 인해 광주·전남지역 중소제조업체의 6월중 평균가동률이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영태)가 지역내 중소기업 106개 업체를 대상으로 생산설비 평균가동률을 조사한 결과 6월중 수치는 전월대비 0.8%포인트 하락한 71.7%로, 올해 들어 가장 낮았다.

광주·전남지역 평균가동률은 지난해 6월 71.4%에서 올해 3월 73.8%로 상승했다가 4월 73.0%, 5월 72.5%, 6월 71.7%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는 광주지역은 70.3%로 전월보다 0.1%포인트, 전남지역은 72.7%로 1.5%포인트 하락했다.

업종별 평균가동률을 보면 의료·정밀·광학기기제조(81.3%) 업종만이 정상가동률(80.0%)을 웃돌았다.

며, 대부분 업종이 70% 이하의 낮은 가동률을 보였다. 특히 목재 및 나무제품(68.0%), 가구제조(66.5%), 비금속광물(67.0%) 제조업종은 정상 가동률을 크게 밑돌았다. 중앙회 관계자는 “건설경기 침체로 내수침체가 이어지고 있는데다 철강·원목·비금속광물 등 원자재 가격의 상승 및 구둑난, 고유가로 인한 물류비 증가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중소제조업의 공장가동이 부진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종태기자 jtle@kwangju.co.kr

9월 LPG값도 내린다

수입가 크게 내려 kg당 50원씩 하락 전망

지난 7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던 액화석유가스(LPG) 수입가격이 8월에는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국내 LPG 공급가격이 오는 9월에도 하락할 여지가 생겨 물가상승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가계의 숨통을 다소나마 틔워줄 것으로 보인다.

4일 가스업계에 따르면 8월 LPG수입가격은 프로판가스는 t당 860달러, 부탄가스는 t당 890달러로 정해졌다.

이는 지난 달에 비해 프로판가스는 t당 45달러(-4.9%), 부탄가스는 t당 60달러(-6.3%)나 떨어진 것이다.

LPG수입가격은 지난달 프로판가스는 t당 905달러, 부탄가스는 t당 950달러에 달하며 사상 최고가 기록을 경신했었다. LPG수입가격이 대폭 내린 것은 최근 하락추세를 보이는 국제유가의 영향이 크다.

이처럼 8월 LPG수입가격이 급락

함에 따라 환율이 지금처럼 안정세를 보일 경우 9월 국내 LPG공급가격은 kg당 50원 정도 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가스업계는 그동안 LPG수입가격 인상을 이유로 지난 6월과 7월 두 달 연속 국내 LPG공급가격을 크게 올렸다가, 이 달에는 소비자 부담과 물가 안정에 힘쓰는 정부정책을 의식해 공급가격을 동결했다. /연합뉴스

친환경농산물은... “믿을 수 있고 가격이 싸야”

광주지역 소비자들은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해서는 신뢰 확보와 가격 인하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광주시가 광주YWCA에 의뢰해 지난 7월 광주지역 20세 이상 남녀 49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조사 결과 친환경 농산물을 구입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338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68.1%를 차지했다.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는 '제품을 신뢰할 수 없어서'가 67건(39.6%)으로 가장 많았고 '가격이 너무 비싸서'가 52건(39.6%)으로 뒤를 이었다. 이와 관련,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한 방안으로 '품질인증의 신뢰성 회복'(148명 26.5%), '판매가격 인하'(127명 22.8%) 등을 꼽았다.

또 원산지 표시제에 대해 보완돼야 할 사항(복수응답)으로는 '상인 및 유통업자의 양심'(209명 40.0%), '관리감독의 소홀'(160명 30.6%), '위반자에 대한 처벌'(72명 13.8%) 등이 포함됐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한국 물가 세계 6위

6월중 5.5% 상승 ... OECD 평균보다 훨씬 높아

한국의 최근 1년간 물가상승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큰 폭으로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상반기에 고환율을 유도하면서 유가 상승이 물가에 미치는 파급력이 더 커져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4일 OECD의 '회원국 연간 물가상승률' 보고서에 따르면 6월 중 30개 회원국의 전년 동월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4%인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5%로 OECD 회원국 평균과 1.1%포인트 격차를 보였다. OECD 회원국 중에서도 선진국인 미국·영국·일본·독일·프랑스·캐나다·이탈리아 등으로 구성된 G7 국가의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1%에 머물렀다.

국가별로 보면 한국은 30개 회원국 중 6번째로 물가상승률이 높았다. 아이슬란드가 12.8%로 1위였고 터키 10.6%, 체코 6.7%, 헝가리 6.7%, 벨기에 5.8% 등의 순



이었다. 일본은 2.0%로 물가 상승률이 가장 낮았고 네덜란드(2.6%), 스위스(2.9%) 등도 물가통제력이 우수했다. /연합뉴스

전남 천일염·화순타올·홍주

세계적 브랜드로 키운다

전라도가 특산품을 생산하는 소규모 영세기업에 대한 경쟁력을 위한 규모화 사업에 나섰다.

전남도는 “소규모 기업형태로 운영 중인 천일염과 화순타올, 진도홍주 등 지역 대표 특산물 제조업체 법인에 대한 규모화와 전문화를 통해 세계적인 브랜드로 육성해나갈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우선 천일염, 화순타올, 진도 홍주 등 3개 분야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 규모화사업 성과모형을 만들고 단계적으로 제조업 전 분야로 확산시켜 나간다는 전략이다.

천일염 분야의 경우 애초 소규모 생산자들의 품질 향상과 공동판매를 위해 작목반 10개를 조직할 계획이었

으나 생산자들의 호응으로 상반기에만 벌써 16개 작목반이 결성돼 공동생산 및 공동판매를 위한 체제를 정비했다. 이어 전남도는 작목반에 새로 개발한 천일염 공동브랜드 사용을 허가할 방침이다.

화순타올은 21개 업체가 공동 출자해 대규모 천연염색 공장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중소기업청으로부터 4천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공동상표도 개발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시범사업에 포함된 3개 분야에 대해 전남도를 대표하는 산업으로 육성, 지역경제에 활기를 불어 넣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재혼만 10년!' (Remarriage 10 Years!). Features a couple and text about financial planning and energy. Includes phone number 527-3388.

Advertisement for ANYCHE CHAIR. Shows various office chairs and the Anyche logo. Text describes the chairs as ergonomic and comfortable.